



동아미디어그룹 사내보 東友	2면	제37회 인촌상 시상식	3면	“시청자의 멘털 MRI로 기억되고 싶어요” 100회 맞은 <금쪽상담소>	4면	동아일보, 4년 만에 기자협회 축구대회 정상 탈환...통산 7번째 우승
----------------	----	--------------	----	--	----	--

“시청자와 더 가까이”... 채널A 보도본부, 유튜브도 접수!

<뉴스TOP10> 구독자 100만 돌파·<김진의 더라방> 동시접속자 3만 육박



① <뉴스TOP10>을 진행하는 김종석 앵커. ② <김진의 돌직구 쇼>의 김진 앵커. ③ <동영상 뉴스터디>의 동정민 앵커(오른쪽)와 <정치시그널>을 진행하는 노은지 앵커. ④ 왼쪽부터 순서대로 <뉴스TOP10>, <김진의 더라방>, <정치시그널> 방송 모습과 보도본부 디지털뉴스부에서 제작하는 쇼츠.

채널A 보도본부가 방송을 넘어 유튜브에서도 약진하고 있다. 새로운 디지털 전용 프로그램을 시작하고, 현장성을 살린 뉴스 등을 선보이며 보도본부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들이 시청자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는 것.

<채널A 뉴스> 유튜브 채널은 10월 13일 기준 구독자 수가 236만 명을 돌파했다. 구독자 10만 명이 증가하는데 두 달이 채 걸리지 않는 등 성장세가 빨라지고 있다. 유튜브 채널이 성장하며 주목도도 높아지고 있다. 9월 21일 진행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국회 표결 뉴스특보의 경우 <채널A 뉴스> 유튜브를 통해 방송을 지켜본 최대 동시 시청자 수는 7만 5188명을 기록했다. 이는 같은 내용으로 방송을 진행한 지상파 등 다른 방송사 유튜브를 압도한 수치로, 역대 보도본부 유튜브 라이브 시청자 수 중에서 가장 많은 숫자이기도 하다.

또 보도본부는 시청자들이 관심을 가질만한 현장을 생생하게 보여주는 ‘현장중계’ 외에도 중요한 장면

을 빠르게 영상으로 전달하는 ‘현장영상’, 뉴스의 핵심만 1분 안에 볼 수 있도록 한 ‘쇼츠’ 등을 제작해 유튜브 채널의 경쟁력을 끌어올리고 있다. 이현수 보도본부 디지털뉴스부 차장은 “날것 그대로를 보고 싶어 하는 구독자들을 위해 이슈가 되는 인물의 브리핑은 어색한 표정이나 장면을 편집하지 않고 그대로 내보내는 데 반응이 좋다”라며 “보통 섬네일과 자막, 배경음악 등 세련된 편집에 공을 들이지만, 속도 상에서는 섬네일만 제작하는 식으로 최대한 빠르게 업로드할 수 있도록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뉴스TOP10> 채널도 지난달에 구독자 100만 명을 넘어섰다. 주요 방송사의 보도 프로그램 유튜브 채널로서는 독보적인 성과다. 특히 최근 들어 <뉴스TOP10> 채널의 구독자와 조회 수 증가세가 가팔라지고 있다. 2021년에는 구독자 증가가 4만여 명, 조회 수는 6000만 회 정도였는데, 지난해에는 11만여 명, 1억 3000여만 회로 증가했다. 올해는 8월까지 구독자 수가 16만 명 이상 늘었고, 조회 수는 2억 회를 훌쩍 넘

어섰다. <뉴스TOP10>을 진행하는 김종석 앵커는 “스트레이트 뉴스를 인물 중심으로 구성해 스토리텔링하는데 이걸 10분 내외의 클립으로 업로드한 것이 유튜브에서 주목도가 있었던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어 “생방송 중 유튜브 채널에 올라오는 촌철살인 댓글을 소개한다. 시청자와 실시간 소통을 통해 우리만의 견고한 구독자층을 만들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진의 돌직구쇼> 채널은 10월 12일 구독자 50만 명을 돌파했다. 방송에서 못다 한 이야기를 더 깊게, 더 솔직하게, 더 집요하게 파헤치겠다는 목표로 시작한 <김진의 더라방>이 효과 역할을 톡톡히 했다. 돌직구 방송이 끝난 뒤 오픈스튜디오에서 유튜브로 송출되는 <더라방>은 9월 4일 첫 시작 이후 평균 2만 명 이상의 동시 접속자 수를 유지하고 있다. 유튜브 다시보기 횟수도 최대 26만 회를 기록했다.

김진 앵커와 패널들은 30여 분간 진행되는 <더라방>에서 유튜브 방송의 특성을 살려 좀 더 편안하고 친근

한 어조를 사용하지만, 토크에서 담아내는 내용은 ‘팩트 중심주의’를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확인되지 않은 선정적 내용은 지양하고 현장에서 취재한 깊은 속내를 담아내겠다는 것이 제작진의 목표다. 김 앵커는 10월 13일 <더라방>에서 “구독자님들의 열화와 같은 응원이 구독자 수 50만 달성을 이루게 만든 원동력이자 에너지, 열정, 사랑”이라며 “깊이 감사드립니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 앵커는 조만간 50만 구독 달성 기념 특별 방송을 진행하겠다고 약속했다.

보도본부 유튜브 채널의 성장세는 디지털 전용 콘텐츠 또한 큰 역할을 하고 있다. <동영상 뉴스터디>는 매회 수십만 조회 수를 기록하며 보도본부의 핵심 디지털 콘텐츠로 자리 잡았다. 또 9월 4일 시작한 유튜브 전용 프로그램 <라디오쇼 정치시그널>은 9월 25일 동시 접속자 수 1만 명에 육박하는 등 인기몰이를 하고 있다.

제37회 인촌상 시상식

이대봉 서울예술학원 이사장·참빛그룹 회장(교육 부문), 김종규 문화유산국민신탁 이사장(언론·문화 부문), 최순원 미국 MIT 물리학과 교수(과학·기술 부문) 수상

인촌 김성수(仁村 金性洙) 선생의 뜻을 기리기 위해 제정된 제37회 인촌상 시상식이 10월 11일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렸다. 인촌상은 일제강점기에 동아일보를 창간하고 경성방직과 고려대를 설립한 민족 지도자 인촌 선생의 유지를 이어 나가기 위해 1987년 제정됐다.

재단법인 인촌기념회(이사장 이진강)와 동아일보는 인촌 선생의 탄생일인 10월 11일에 맞춰 매년 시상식을 열고 있다. 이날 수상자는 ▲이대봉 서울예술학원 이사장·참빛그룹 회장(교육) ▲김종규 문화유산국민신탁 이사장(언론·문화) ▲최순원 미국 매사추세츠공대(MIT) 물리학과 교수(과학·기술)로 각각 상장과 메달, 상금 1억 원을 받았다.

이진강 이사장은 인사말에서 “인촌상은 인촌 선생의 나라 사랑 외침이 무엇이었는지 되새기고, 미래로 나아가자 하는 역사 인식의 표상”이라며 “수상자들이 더 밝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 나갈 마음을 다지길 바란다”고 했다.

김도연 인촌상 운영위원장은 수상자 선정 경위를 보고했다. 운영위원회는 외부 심사위원 16명을 위촉하고 후보군을 추린 뒤 6월부터 8월까지 여러 차례 회의를 열고



제37회 인촌상 시상식이 10월 11일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진행됐다. 왼쪽부터 김재호 동아일보·채널A 회장, 수상자인 이대봉 서울예술학원 이사장·참빛그룹 회장, 김종규 문화유산국민신탁 이사장, 최순원 미국 매사추세츠공대(MIT) 물리학과 교수, 이진강 인촌기념회 이사장.

최종 수상자를 확정했다.

교육 부문 수상자인 이대봉 이사장(82)은 36년 전 촉망받는 성악도였던 아들이 서울 예고 2학년 때 선배들에게 맞아 쓰러진 뒤 다시 일어나지 못하자 폭력 없는 학교를 만

들기로 마음먹었다. 이 이사장은 2010년 서울예술학원(서울예고, 예원학교) 재단을 인수한 뒤 지금까지 사재 약 550억 원을 출연했다.

이 이사장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 헌신

하며 교육을 강조했다. 인촌 선생의 뜻이 담긴 상을 받게 돼 영광”이라며 “아들을 떠나 보낸 후 (가해자들) 원망하지 않고 참으려 애썼다. 여러분도 큰일이 닥쳤을 때 원수를 용서하시면 좋을 것 같다”고 했다.

김종규 이사장(64)은 사라져 가는 우리 문화유산을 찾아서 지키고 가꾸며 미래 세대에 물려주기 위해 헌신했다. 김 이사장은 “인촌 선생은 암울했던 일제 치하에서는 물론 광복 후 우리나라, 우리 시대를 이끌어주시는 큰 어른”이라며 “더 열심히 하라는 주마가편으로 알겠다. 수상의 영광을 문화유산국민신탁 회원과 박물관·미술관인들에게 돌린다”고 했다.

최순원 교수(36)는 양자시뮬레이션, 양자계측, 양자인공지능, 양자계산 및 알고리즘 개발 등 양자과학기술 전 분야에 걸쳐 연구 성과를 낸 세계적인 석학이다. 다이아몬드 인공 원자를 활용해 양자시뮬레이션으로 시간 결정(Time Crystals)을 구현하는 방법을 세계 최초로 고안했다.

최 교수는 “국가민족을 위해 헌신하는 인생과 개인의 행복을 추구하는 인생 사이에서 무엇을 선택할지 10년 넘게 깊이 고민하다가 두 가지 삶의 방식이 양립할 수 있다는 깨달음을 얻었다”며 “대한민국 출신의 초일류 과학자가 되겠다. 그 과정에서 저를 존재할 수 있게 만든 이웃과 조국의 은혜를 절대 잊지 않고 헌신하는 삶을 추구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시상식엔 오명 전 부총리 겸 과학기술부 장관, 유종하 전 외무부 장관, 이경재 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장석영 대한언론인회 회장,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축하 공연은 서울예고 학생들이 펼쳤다.

편집국 문화부 이호재

‘A FARM SHOW’ 숨은 주역 AD본부 미디어기획팀을 만나다

“체험과 볼거리 제공하기 위해 직접 발품 팔며 참여 업체 섭외”



화기애매하게 대화를 나누고 있는 AD본부 미디어기획팀. 왼쪽부터 김성철 팀장, 이대우 차장, 이석호 차장, 권솔 매니저, 윤정우 매니저.

“올해 10주년을 맞은 ‘A FARM SHOW(에이팜쇼)’가 한층 더 업그레이드됐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팀원들이 직접 발로 뛰며 준비해 왔다. 덕분에 ‘스마트 팜, 스마트 잡’이란 주제에 부합하는 여러 기업과 청년농의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었다.”

김성철 AD본부 미디어기획팀장은 9월 1일부터 3일까지 서울 서초구 aT센터에서 열린 에이팜쇼를 회상하며 이같이 말했다. 편집국과 보도본부, AD본부, 전략기획본부 등이 함께 준비한 올해 에이팜쇼에는 지방자치단체와 기업, 공공기관 등이 280여 개 부스를 마련해 역대 최대 규모로 열렸다. 사흘간 4만여 명 넘는 관람객이 현장을 찾았다.

AD본부 미디어기획팀은 에이팜쇼 준비

과정에서 ‘디렉터’ 역할을 맡았다. 3월부터 박람회 대행사를 선정하고 7월에는 편집국, 전략기획본부 등과의 테스크포스(TF)도 가동했다. 박람회 취지에 맞는 기업들의 섭외에도 직접 나섰다. 이번 박람회에서 수직재배 시설로 주목받은 스마트팜 기술개발 업체 ‘그린’도 미디어기획팀 권솔 매니저와 윤정우 매니저가 발품을 팔아 섭외한 곳이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추천한 우수 청년기업인 중 에이팜쇼 취지에 부합하는 업체를 선정했다. 윤 매니저는 “에이팜쇼에서 농업이나 푸드테크와 관련된 체험과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푸드테크협회와 머리를 맞대고 기업들을 추천받기도 하고, 관련 박람회를 돌아보며 참여업체를 현장에서 섭외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미디어기획팀은 에이팜쇼와 같이 동아일보·채널A가 주최하는 박람회 준비뿐 아니라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의 홍보 및 행사 대행까지 업무 영역을 넓혀가고 있다. 정부 부처의 대국민 캠페인부터 교육 홍보사업, 박람회 운영 등을 입찰을 통해 수주한 뒤 대행사 역할을 맡는 것이다.

김 팀장은 “외부기관으로부터 수주하는 사업 건수와 매출 규모가 매년 증가세”라며 “올해도 외부 입찰 수주 덕분에 팀에서 목표한 매출 목표치를 조기 달성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성과도 동아일보와 채널A의 경쟁력이 있는 콘텐츠와 내부 구성원들의 지원 덕분”이라고 덧붙였다.

경영전략실 경영총괄팀 권오혁

영국 내셔널갤러리 명화전, 관람객 36만 명 돌파하며 성황리 마무리

국립중앙박물관 역대 특별전 중 누적 관객 수 3위 기록



관람객들이 서울 용산구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진행한 <거장의 시선, 사람을 향하다-영국 내셔널갤러리 명화전>에 전시된 그림을 유심히 감상하고 있다.

지난 6월 2일부터 10월 9일까지 129일간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열린 <거장의 시선, 사람을 향하다-영국 내셔널갤러리 명화전>이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동아일보사가 공동 주관으로 참여한 이번 전시는 36만1866명의 관람객이 방문한 것으로 집계됐다. 일 평균 2800명의 관람객이 전시를 찾은 것.

이번 전시의 누적 관람객 수는 국립중앙박물관이 개최한 역대 특별전 중 3번째로 많은 수치다. 2009년 <이집트 문명전-파라오와 미라>(44만8208명)와 2014년 <오르세미술관전: 근대 도시 파리의 삶과 예술-인상주의, 그 빛을 넘어>(37만3831명) 이후 최대 규모다.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이후 국립중앙박물관이 회차별 입장 가능한 관람객 수를 제한하

고 있는 상황에서 내셔널갤러리 명화전이 열린 점을 감안하면 반응이 더욱 뜨거웠다고 볼 수 있다. 같은 전시를 여러 번 보는 ‘N차 관람’도 이어졌다.

이번 전시는 1883년 이뤄진 한국과 영국 수교 140주년을 기념해 영국 내셔널갤러리 소장 명화를 국내 최초로 공개한 전시다. 관람객들이 전시를 만나기까지 문화사업본부는 무대 뒤에서 바쁜 일정을 소화했다.

편집국, 보도본부와 협력해 전시회와 관련된 자세한 정보를 담은 관련 기사를 냈고, 방송과 지면 광고 등 전시 홍보에도 적극 나섰다. 이렇듯 모두의 협력으로 내셔널갤러리 명화전은 큰 호평 속에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

문화사업본부 문화기획팀 김민환

“시청자의 멘털 MRI로 기억되고 싶어요” 100회 맞은 <금쪽상담소>

메인 연출 맡은 제작본부 2CP 정재국 PD 인터뷰



채널A 대표 예능 <오은영의 금쪽상담소>가 10월 3일 방송 100회를 맞았다. 2021년 9월 첫 방송을 시작한 이후 174명의 손님이 각자의 고민을 품고 <금쪽상담소>를 찾았다. 이들에게 건네는 진심 어린 위로와 솔루션은 시청자에게 깊은 울림을 줬다.

<금쪽상담소>의 메인 연출을 맡은 정재국 PD는 100회의 원동력으로 ‘진정성’을 꼽았다. 출연자들의 고민과 상처를 치유하는 과정에서 같이 울고 때론 웃었던 제작진의 이야기를 들어봤다.

<금쪽상담소>가 100회를 맞이했는데, 감회가 새로울 것 같다.

‘기쁘다’, ‘뿌듯하다’라는 말로는 표현하기 힘든 감정인 것 같다. 요즘처럼 채널도 많고, 매일 콘텐츠가 쏟아지는 미디어 환경을 생각해 볼 때 ‘내 PD 인생에서 이처럼 100회를 맞이하는 프로그램을 다시 만날 수 있을까’라는 감사함을 매일 느끼곤 한다.

100회까지 달려올 수 있었던 가장 큰 원동력은 무엇인가?



상투적인 표현이지만 ‘진정성’이라 생각한다. 100회쯤 되면 사실 모두가 이 현상이 익숙할 법도 한데 오은영 박사님의 상담이 진행되는 동안 수제자 MC들은 물론이고 카메라 밖에 있는 모든 스태프들까지 미동도 없이 숨죽인 채 박사님과 고객님의 대화에 100% 몰입한다. 가끔씩 들리는 소리

는 고객님의 아픔에 눈물 흘리며 훌쩍이는 소리 정도?(웃음)

저희가 초반에는 스튜디오 안에 티슈를 준비했었는데 고객님과 MC들뿐만 아니라 제작진까지 하도 눈물을 훔치느라 녹화 한번 할 때마다 티슈가 몇 통씩 동이 났다. 이처럼 한마음 한뜻으로 똘똘한 공감의

에너지가 녹화 현장에 가득하다. 출연하는 분들이 고민과 상처를 털어놓기까지 쉽지 않은 결정을 한 만큼 모두가 ‘진정성’으로 그 이야기를 담고 표현하는 것에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인다.

촬영이나 섭외에 어려움은 없었나?

다른 토크쇼는 몰라도 <금쪽상담소>만큼은 쉽게 용기가 나지 않는다는 분들도 종종 있다. 반대로 오직 <금쪽상담소>이기 에 모일 수 있고 담을 수 있는 분들도 많다.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란 마음으로 눈에 불을 켜고! 다른 곳에선 말 못 할 고민을 가진 분들을 찾고자 한다.

<금쪽상담소>를 하면서 가장 보람을 느꼈던 순간은 언제인가?

댓글을 볼 때다. 상처를 받는 댓글도 간혹 있지만 다양한 의견들을 보면서 ‘아 세상의 단단한 무언가를 우리가 깨어가고 있구나’라는 느낌을 받는 순간들이 있었다. 또, 언젠가부터 <금쪽상담소>가 고유명사가 된 것 같다. 미디어나 지자체 행사 등에

서 패러디하고 일상에서도 고민을 상담하거나 진심 어린 대화가 오고 갈 때 ‘금쪽상담소가 열렸다’고 표현한다. 그만큼 정신건강에 대한 대중적인 이해도와 감수성이 <금쪽상담소>가 방송된 2년 동안 많이 높아진 것 같아 뿌듯하다.

<금쪽상담소>가 앞으로 어떤 프로그램으로 기억되길 바라는지?

‘매주 80분간 진행되는 내 마음의 건강검진’을 프로그램의 궁극적인 지향점으로 삼고 있다. ‘마음의 건강’에도 다양한 카테고리 있다고 생각한다. 그렇기에 우리가 앞으로 헤쳐갈 수 있는 멘털 케어는 무궁무진하지 않을까. 단순한 프로그램을 넘어 시청자의 멘털 MRI, 멘털 X레이, 멘털 수지침, 멘털 인마의자로 기억되고 싶다.

모두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금쪽상담소>의 공감 테라피는 매주 화요일 오후 8시 10분에 계속된다.

편성전략본부 C-밸류업팀 최화정

최고의 강사와 학생이 만드는 감동 실화 <성적을 부탁해 티처스>

11월 5일 오후 7시 50분 첫 방송



방송인 전현무(앞줄 가운데), 장영란(앞줄 오른쪽)과 배우 한혜진(앞줄 왼쪽)이 MC를 맡는다. 강사 정승제(뒷줄 왼쪽)와 조정식이 티처로 등장해 솔루션을 제시한다.

공부와 성적이 고민인 중·고등학생에게 대한민국 최고의 강사진이 직접 코칭해 성적을 올려주는 에듀 솔루션 버라이어티 프로그램이 등장했다. 바로 <성적을 부탁해: 티처스>다. 누적 수강생 910만 명의 대한민국 수학 영역 대표 강사 정승제와 영어 영역 입성 1년 만에 최고의 강사로 자리매김한 조정식이 티처로 나서 학생들과 30여 일 동안 동고동락하며 솔루션을 제시한다.

특히 정승제 강사는 “올바른 학습법만 배우면 혼자서도 충분히 공부할 수 있다”고 했고, 실제로 전력을 다해 학생들에게 공부 방법을 전달했다.

다만 두 강사의 혼신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한 달여 만에 성적을 올리기가 쉽지 않았다. 그동안의 학습 공백을 메우야 하고, 습관까지 바꿔야 하기 때문이다.

<티처스>에 참여한 한 학생은 방대한 공부량에 “못하겠다”며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 그러나 “학생이 포기하기 전에 내가 먼저 포기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티처들의 노력에 학생들도 힘을 냈다.

<티처스>를 이끌어 갈 MC로는 방송인 전현무와 장영란, 그리고 배우 한혜진이 확정됐다. 사교육을 제대로 겪은 시험 강자인 전현무는 성적이 고민인 청소년들에게 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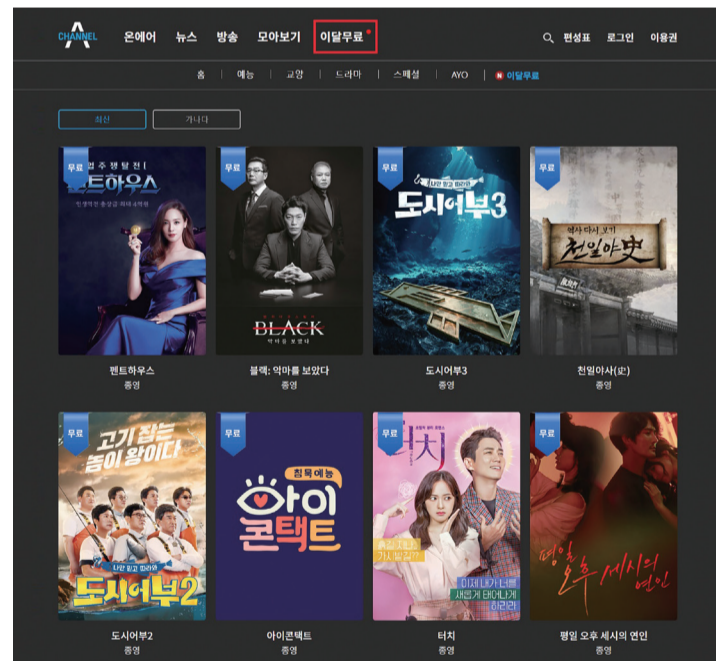
험에서 우러나온 조언을 건넨다. ‘현직 목동맘’ 장영란과 초등학교 딸을 둔 한혜진은 부모의 입장에서 교육에 대한 궁금증을 털어놓으며 학부모들의 가려운 부분을 긁어줄 전망이다.

학생들의 성적을 올리기 위해 휴일도 반납한 정승제와 조정식 두 티처는 과연 30일의 기적을 보여줄 수 있을까? 티처들과 학생들이 만들어 가는 감동 실화는 11월 5일 일요일 오후 7시 50분 첫 방송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제작본부 2CP 윤혜지

“채널A 드라마·예능 부담 없이 보세요” 무료 VOD관 오픈

<펜트하우스>, <도시어부3> 등 종영 프로그램 무료 시청 가능



채널A 웹사이트 내 '이달무료' 버튼을 클릭하면 무료 VOD관으로 연결된다.

채널A 웹사이트(www.ichannela.com) 내 무료 VOD관이 9월 8일 오픈했다. 홈페이지 상단 중앙에 위치한 [이달무료] 버튼을 클릭하면 무료관으로 바로 연결된다. 현재 <펜트하우스> <도시어부3> <굿피플> 등의 예능과 <평일 오후 세시의 연인> <타치>와 같은 드라마까지 총 12개의 프로그램 전체 회차 VOD가 등록돼 무료로 감상할 수 있다. 무료 시청 가능한 프로그램 리스트는 한 달 주기로 업데이트된다.

프리롤 광고 4개가 노출된 후에 본편 영상이 재생되며 비로그인 상태로는 3분만 시청할 수 있다. 광고 없이 영상

을 즐기고 싶다면 영상 플레이어 하단에 있는 ‘광고 없이 고화질로 보기’ 버튼을 눌러 이용권을 구매하면 된다. 무료 VOD관의 오픈으로 종영 프로그램을 재조명하는 한편 광고 수익을 높이고 신규 회원가입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채널A 웹사이트에서는 자동결제 이용권 최초 구매 시 첫 한 달간 무료로 온에어 및 다시보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으며 선착순 1000명에게는 별도 쿠폰이 지급된다.

경영전략실 디지털노베이션팀 김경민



동아일보 축구팀이 9월 23일 경기 고양시 어울림누리 별무리경기장에서 열린 제49회 한국기자협회 서울지역 축구대회 결승전에서 승리한 뒤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서울경제신문과 벌인 결승전 경기 모습.



9월 17일 열린 채널A(파란색 유니폼)와 뉴스1의 16강전 경기 모습

동아일보, 4년 만에 기자협회 축구대회 정상 탈환...통산 7번째 우승

대회 최우수선수는 '승부차기 선방' 편집국 경제부 박민우 차장
채널A는 16강 석패, 영건들 대거 포진으로 내년 선전 기대

동아일보가 한국기자협회 축구대회에서 4년 만에 정상을 탈환하며 통산 7번째 우승을 달성했다.

동아일보는 9월 23일 경기 고양시 어울림누리 별무리경기장에서 열린 제49회 한국기자협회 서울지역 축구대회 결승전에서 전후반을 0-0으로 비긴 뒤 승부차기에서 5-4로 서울경제신문을 꺾고 정상에 올랐다. 동아일보는 1972년 제1회 대회에서 우

승한 뒤 2011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에 이어 통산 7번째 우승컵을 들어 올렸다. 골키퍼로 승부차기에서 선방한 박민우 차장(경제부)이 대회 최우수선수(MVP) 상을, 이승현 편집국 부국장이 감독상을 받았다. 동아일보는 한국스포츠경제(8-0), MTN(1-0), 머니투데이(3-2), 한겨레, YTN(이상 1-0)을 연거푸 꺾고 결승에 올랐다.

동아일보 선수들은 지난해 불의의 1차

전 탈락을 만회한다는 각오로 "다시, 우승!"이라는 짧고 명확한 구호를 외치고 경기장에 섰다. 대회 전 7월부터 일주일에 2차례 서울 용산구 효창운동장에 모여 오전 6시부터 8시까지 맘 흘렸던 동아일보 선수단의 창은 날카로웠고, 방패는 단단했다. 동아일보는 6경기에서 14골을 몰아치는 막강 화력을 과시했고, 6경기에서 2골만을 내준 수비진의 '통곡의 벽' 앞에서 상대팀은 번번이 주저앉았다.

위기상황에선 역대 최다 우승에 빛나는 '챔피언 DNA'가 돋보였다. 머니투데이와의

16강전에선 선제골을 허용하고도 곧바로 동점골과 추가골을 넣으며 경기를 뒤집었다. 한겨레와의 8강전에서는 후반 막판까지 집중력을 잃지 않은 끝에 혼전 상황에서 골망을 흔들었다. 13년째 동아일보를 지도하고 있는 유동기 감독(БК기업은행 구리지점장)은 "한여름 더위 속에도 새벽같이 모여 묵묵히 훈련한 선수들의 열정이 우승의 원동력"이라고 말했다.

대회 기간 내내 김재호 동아일보-채널A 회장을 비롯한 모든 임직원들은 하나로 뭉쳐 응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았다. 지난해 입

사한 편집국 막내 기자들은 응원 플래카드와 응원도구를 직접 준비해와 선수단의 사기를 끌어올렸다. 최원영 기자(사회부)는 "회사 식구들이 축구로 하나가 돼 물결했고 우승까지 해 벅찬 감동을 느꼈다"며 "응원을 하러 왔는데 오히려 에너지를 얻어 갔다"고 했다.

한편 올해 막강한 공격력으로 대회 전 상위권 진출이 점쳐졌던 채널A는 뉴스1과의 승부차기 접전 끝에 아쉽게 16강에서 패했다. 그러나 탄탄한 실력을 갖춘 젊은 기자들이 대거 포진한 채널A는 향후 기자협회 축구대회의 판도를 뒤바꿀 강호로 거듭날 수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동아일보 축구팀(편집국 사회부) 김자현

2023 사원확장 캠페인 '같이, 가치 나누다' 진행

캠페인 참여 임직원 1명당 도시락 1개 후원



기간 | 2023.10.1 ~ 12.31

매체 | 동아일보, 스포츠동아, 머니투데이

문의 | 1577-7546 동아일보 마케팅본부

동아일보 사원확장
카카오톡 친구를 추가해주세요

동아일보 마케팅본부는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동아미디어그룹 사원을 대상으로 '같이, 가치 나누다' 사원확장 캠페인을 진행한다. 이번 캠페인에 참여하는 임직원 1명당 도시락 1개를 저소득층 어르신 또는 결식아동에게 후원할 계획이다.

본격적인 캠페인 시작에 앞서 9월 1일부터 20일까지 처음 실시한 얼리버드 이벤트에는 107명의 사원이 참여했다. 참여자들에게 커피, 치킨 쿠폰 등이 증정됐다.

이번 사원확장 캠페인의 특징은 시상 기준은 낮추고 구간은 확대해 혜택을 더 늘린 것이다. 특히 '어서

와, 확장은 처음이지?' 이벤트는 올해 1월 1일 이후 입사한 사원들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신규 입사자들은 신규 확장 1부만 참여해도 스타벅스 e카드 3만 원 교환권 또는 JBL 블루투스 스피커를 받는다. 또 마케팅본부는 이번 캠페인 기념품으로 호신용 경보기를 제작해 모든 사원에게 전달했다.

캠페인을 마친 뒤 우수 확장 사원에게는 확장우수상(신규+재연결)과 관리우수상(신규+재연결+유지)을 시상한다. 확장우수상은 개인 부문을 통해 ▲대상 1명 500만 원 ▲금상 2명 300만 원 ▲은상 3명 200만 원 ▲동상

4명 100만 원을 각각 지급한다. 단체 부문은 국·실(최대 500만 원)과 계열사(최대 300만 원)를 분리해 각각 1인당 5만~10만 원씩 시상한다. 또 관리우수상은 ▲200부 이상(전조기 또는 슈드레스) ▲100부 이상(갤럭시워치6 클래식 또는 압력박스) ▲50부 이상(갤럭시워치6 또는 무선헤드폰) ▲30부 이상(갤럭시워치5 또는 카메라선) ▲20부 이상(인택선, 외장하드, 무선이어폰 중 택1) ▲10부 이상(토스터기) ▲5부 이상(무선포토)을 시상한다. 이 밖에도 매달 1차례 깜짝 이벤트도 진행할 계획이다.

마케팅본부 마케팅총괄팀 김지현

DAMG 수상소식

동아일보 신석호 부국장,
통일문화대상 수상



편집국 신석호 부국장(사진)이 10월 5일 열린 제16회 통일문화대상 시상식에서 통일문화대상(언론문화 부문)을 수상했다. 북한학 박사인 신 부국장은 신문과 방송을 통해 북한의 실상을 알리고 통일의 필요성을 알리는데 기여해 왔다. 이 상은 통일문화연구원(이사장 리종익)이 통일 기반 조성에 기여한 개인이나 단체에 수여한다.

채널A 백승우 기자,
'환자 안전 공로'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



보도본부 사회1부 백승우 기자(사진)가 9월 15일 열린 '환자안전의 날' 기념행사에서 환자안전 제도 정착 및 환자 안전활동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받았다. 백 기자는 지난해 제주대학병원에서 13개월 영아가 사망한 '제주 유림이 사건' 관련 단독 보도를 했고, 환자안전법 개정안 발의 과정에도 기여했다.

New face 새 식구를 소개합니다

- 이름 / 부서 ① 입사 후 포부
- ② 요즘 관심사 ③ 최종 직장



이예은 / 동아일보
AD본부

① '수처자주 임처개진(隨處作主 立處皆眞)' "어느 곳이든 주체가 된다면 서는 곳마다 참(眞) 될 것이다" 제가 항상 마음에 새기는 고사성어입니다. 이 마음을 바탕으로 동아일보에서 주인의식을 갖고 어디에서든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② 사회 이슈와 국제사회에 관한 관심이 높아 매일 아침 기사를 보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또한 해외여행을 좋아해 종종 혼자 여행하기도 즐겨하고 새로운 도시를 찾아 나서는 것에도 관심이 많습니다.
③ 아이티조선



이원익 / 동아일보
AD본부

① 현직 영업인으로 일하며 남녀노소 수천 명을 만나 사람을 대하는 법을 배웠고, 매출에 대한 실질적 목표를 정하고 달성하는 것에 기쁨을 느끼고 있습니다. 다양한 경험으로 체득한 커뮤니케이션 기술을 바탕으로 마음을 얻는 영업인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쌓아온 경험을 바탕으로 현재에 안주하지 않고 도전을 시작하겠습니다.
② 7월부터 크레스티드게코라는 뉴클레오니아 자생 도마뱀을 입양하여 축양하고 있습니다. 우연히 유튜브 알고리즘을 통해 추천된 영상을 보며 관심을 갖게 되고, 공부를 하며 크레의 매력을 알아가게 되어 현재 취미생활의 일환으로 키우고 있습니다. 크레는 관리하기가 편하고 파충류이지만 충식을 안해도 된다는 점이 초보자에게도 장점이 있습니다. 하루 일과를 마치고 피딩이나 관리를 하다보면 스트레스도 풀리고 힐링이 되는 부분이 좋습니다.
③ 헬스조선



김대욱 / 채널A
보도본부

① 새로운 도전은 항상 마음을 떨리게 만듭니다. 여전히 모르는 게 투성이인 세상입니다. 그 가운데 한 줄기의 진실을 쫓겠습니다. 채널A의 명성에 걸맞은 기자가 되겠습니다.
② 건강한 마음은 건강한 신체에서 비롯됩니다. 걷고 사색하길 즐깁니다. 근래에는 무작정 뛰는 버릇이 생겼습니다. 생명 연장을 위한 꿈이면서도 사고의 틀을 바꾸는 행위입니다.
③ 대전일보